하나님 나라와 부활의 믿음을 허락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지난번 소식을 드린 것처럼 2018년 말로 고아원 아이들이 이사를 감으로 건물은 법정관리가 풀렸습니다. 그러나 2017, 2018년 2년간의 회계감사가 아직 남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서류검사 부분이 마무리 되어야 모든 법정관리가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모든 서류를 정리해서 지난주로 시청에 접수를 하고 나니 한편 홀가분 하기도 했지만, 아직 검토하는 시간이 남아있고, 통과된 이후에도 지난 10년간 고아원을 통해 얻은 고소건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래도 모든 이웃들이 선교관을 뺏겼다고 걱정하던 1년동안, 꼭 필요한 작업들의 마무리만을 위해 시간과 공간을 사용하신 하나님께서는 저희 기도를 응답하시듯 선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며 많은 분들의 기도의 결과임을 감사드립니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단 1년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지저분하게 방치하며 사용한 건물을 일단 깨어진 유리와 내부 칠 및 간단한 보수공사를 통해 예전의 모습은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시간들을 주님께 만 두 손을 모았던 그 순간들을 돌아보게 하셔서 얼마나 감사했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들의 부활과 특히 고아원 사역과 병행하려던 **마을학교사역**이 앞으로 주 사역이 되기 위해 교실들의 용도 변경과 외벽 보수와 칠 작업이 필요하지만 재정 상태가 여의치 않아 더 기도하기로 하며, 일단 서류부분까지 통과되어 법정관리에서 벗어나면 바로 사역이 시작 될 수 있도록 교실 꾸미기 등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브라질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려울 때 일수록 선교현장의 많은 현지인 가정들의 어려움은 그 어느때보다 더 하기에, 지난 11월부터 가정방문을 통해 부모들에게 '예수님 중심의 삶'의 중요성을 통한 말씀의 도전과 자녀들의 교육, 꿈과 소망, 인성, 성품등의 변화와, 화목의 공동체로서의 행복을 누리는 가정을 전하며 저희 마을학교와 기술학교의 사역취지와 함께 주님의 격려의 선물로 생필품상자를 매달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상자의 사용 방법을 더 많은 가정을 만나기 위한 **'두드림'**으로 사용하기 위해 학교 전도 집회와의 접목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교회(저희)와 가정(부모)과 학교(교사)의 **관심의 삼각관계**는 필수입니다. 그래서 전도집회를 통해 교사들이 맡은 반에서 기도하며 선별해 주는 가정을 찾아가며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성장시키려 합니다. 감사한 것은 고아원을 통한 복지사역을 이뤄오며 기관들과 맺었던 유대관계를 통해 앞으로 **노인복지관에서의 전도집회**도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지되었던 사역들도 다시 시작되게 됩니다.
- 학교전도집회 / 마을전도집회 / 교사훈련 / 걸인예배 / 선교훈련.

은혜의 집과 사역들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사역들의 부활과 정착.
- 마을학교의 현장과 교사진 구성.
- 이 사역들의 준비와 정착을 위한 후원과 기도의 동역자 및 협력교회 연결.

부활의 산소망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위에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유충선, 최인숙선교사 올림